FX Market Daily

2026-02-13

전일동향

전일 대비 9.90원 하락한 1,440.20원에 마감

12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 대비 9.90원 하락한 1,440.2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50원 하락한 1,448.60원에 개장했다. 4거래일째 이어진 외국인 주식 매수 행진으로 직전의 대규모 매도를 되돌리며, 1,440.20원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엔화와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 강세 흐름도 하락 명분이 됐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13.9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3.21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48.60	1451.80	1433.50	1440.20	1443.40
엔화	946.33	947.57	934.95	943.21	-
유로화	1721.30	1722.49	1698.76	1709.39	-

* 시가/고가/저가/종가: 달러는 익일 06:00(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89	-4.47	-9.25	-16.08
결제환율(수입)	-0.25	-3.04	-6.95	-12.46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리스크 오프 분위기에...1,44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5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440.20) 대비 1.80원 상승한 1,440.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리스크 오프 분위기에 제한적 상승 전망한다. AI 기술 고도화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우려가 다시금 부각되며 간밤 미국 물류 업체와 부동산 업체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고, 뉴욕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자극해 환율상승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투자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전일과는 달리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가능성이 커진 점도 원화 가치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금주 환율 하락을 이끌었던 설 연휴 전 수출업체 네고물량의 유입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엔화와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의 강세 흐름은 환율 상단을 제한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37.25 ~ 1446.00 원

체크포인트

-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9954.04 억원
-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80원↑
- ■ 美 다우지수 : 49451.98, -669.42p(-1.34%)
-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34.74 억달러
-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104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